

해안길 걸으며 SNS 인증도... "MZ세대 모여라"

아웃도어 액티비티 열광하는 2030세대 늘어 '해파랑길' '남파랑길', 아이더로드 공식코스 GPS 기반 운동 앱 트래킹로 걷기 기록 인증 걸으며 쓰레기 줍는 '클린 더 로드백' 챌린지도

"지난해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봄비는 곳을 피하다 보니 등산을 많이 다녀왔어요. 올해부터는 해파랑길, 남파랑길을 따라 '코리아둘레길 도장깨기'에 도전 중입니다." 평소 크루로 활동하며 등산을 즐겼던 대학생 김도권씨는 올 봄부터 '코리아둘레길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직장인 김윤지씨는 주말이면 둘레길을 찾는다. 주중에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주 '주말 한 코스 달성하기'를 목표로 걷기 여행을 즐기고 있다. "지난주에는 남파랑길 49코스를 완주하고 왔어요. 어렵지 않은 코스로 4시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탁 트인 자연에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생각도 정리할 겸 걷는 재미에 빠졌죠. 걷기 기록과 함께 인증샷을 보면서 '열심히 걸었구나'하는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MZ세대가 MZ세대를 부른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놀이 문화가 된 아웃도어 액티비티. 일상 속 제약이 줄어들면서 등산, 걷기, 트레일 러닝 등 야외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로 일상의 갑갑함을 해소하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자신들이 즐긴 액티비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록, 자랑, 인증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MZ세대가 MZ세대를 아웃도어 활동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한 걷기 여행 문화를 선도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아이더로드4500 캠페인' 시즌2를 전개 중이다. 한반도 외곽을 하나로 잇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걷는 캠페인으로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시행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더로드4500의 공식코스는 4500km의 코리아둘레길 중 현재 운영 중인 770km 길이의 동해안 해파랑길과 1463km 길이의 남해안 남파랑길이다. 조성 단계에 있는 서쪽 서해랑길과 북쪽 DMZ 평화누리의 길은 완공 시점에 맞춰 향후 캠페인 영역으로 확대 반영될 예정이다.

캠페인은 GPS 기반의 운동 인증 앱 트래킹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걷기 코스를



아이더로드 체험단 참가자의 인증샷과 트래킹의 해파랑길 안내 이미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클린 더 로드백(왼쪽부터 시계방향). 걷기 여행이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시즌2를 맞은 아이더로드4500 캠페인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 | 아이더



안내 받을 수 있어 초보자라도 걱정없이 완주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자신의 걷기를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으며, 앱 내 클럽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이더로드 완주 인증 이벤트'의 경우 클린 더 로드백, 굿즈 슬리퍼, 완보 기념메달 등 달성 구간에 따른 경품이 지난 시즌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 해안길 쓰레기는 클린 더 로드백에 '속'

인증 문화를 활용한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길을 걸으며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모습과 추억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아이더로드4500 사진공모전'을 매월 진행한다. 아이더로드 공식 코스에서 촬영한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된다. 코스를 완주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며 코스에 포함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15일 전월 수상작이 발표된다.

걷기 여행을 즐기면서 환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클린 더 로드, 플로킹 챌린지'도 마련됐다. 전국 방방곡곡 아이더로드를 따라 걸으며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클린 더 로드백'에 쓰레기를 되가져와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을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클린 더 로드백'은 가볍게 휴대하기 좋은 짐색 스타일로 증정 이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아이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응모(24일까지, 100명 추첨)하거나 아이더로드4500 캠페인 완주 인증(한 코스 완주 인증자, 선착순 500명)을 하면 참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캠페인 참여방법 및 이벤트 정보는 아이더 공식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더 마케팅팀 조재중 이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더욱 다채로운 이벤트와 캠페인 구성으로 시즌2를 준비했다"며 "걷기 좋은 5월,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아이더로드4500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 아름다운 우리나라 해안길을 누비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소노호텔앤리조트, 얼리섬머 패키지 출시
소노호텔앤리조트는 전국 9개 지역 워터파크(사진)를 동시 개장하면서 '소노 얼리섬머 패키지'를 출시한다. 동시 개장하는

워터파크는 흥천 오션월드를 비롯해 오션어드벤처(거제, 천안), 오션플레이(고성, 양양, 삼척, 경주, 부산) 등이다. 모두 야외 슬라이드, 파도풀, 유수풀 등을 운영한다. 패키지는 리조트 객실과 워터파크 이용권(성인 2인권과 미취학아동 2인 등 최대 4인)으로 구성했다. 전국 9개 지역 중 선택 가능하다. 19일 오후 5시까지 카카오톡이 커스를 통해 특별 판매하며 이용기간은

21일부터 7월 22일까지다. 워터파크 입장객에게 물놀이에도 안전한 오션마스크를 1인 1매 무료 증정한다.

아시아나, 호주 테마 여행무착륙 관광비행
아시아나항공은 호주를 테마로 한 'A380 무착륙 관광비행'을 진행한다.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5일, 22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운항한다. 세 차례 관광비

행 동안 탑승수속 카운터와 게이트에서 호주 대사관의 마스코트인 코알라 '코코'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호주 대사관과 호주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선착순, 랜덤으로 증정한다. 탑승자에게 룩시팡 아메니티 키트를 제공한다. 기내에서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4일(금) 음력: 4월 3일 문익: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이롭다.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큰 뜻을 펼치고 싶은 데 날이 저문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공연히 분주하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삼가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집수리, 이사, 잔치, 혼인도 피하라.	행운의 기운이 강하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이롭다. 강인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승진이나 시험 합격이 어려운 날이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기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보는 운세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경계방등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오늘은 자신을 스스로 옥쇄는 행상을 보인 다호랑이띠와 말띠를 만나라. 꽃을 피우는 날이 될 것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형상이다.

아웃도어&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15



"엄마, 곰 엉덩이가 귀여워요" 사파리 트램은 버스 높이가 낮아 더 가깝고 생생하게 맹수들의 일상을 관람할 수 있다. 사진제공 | 에버랜드

"사방 투명 관람차로 더 가깝고 생생하게"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신형 투어 트램 도입

특수 방탄유리로 안전 확보... 최대 56명 관람 가능

용인 에버랜드는 인기시설인 사파리월드에 더 가깝고 생생하게 맹수 관찰이 가능한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이하 사파리 트램)을 도입해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사파리월드는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으로 오픈한 1976년부터 버스를 타고 맹수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운영해 왔다. 올해 개장 45년 만에 투어 차량을 버스에서 트램으로 변경했다.

새로 도입한 사파리 트램은 에버랜드가 개장 45주년에 맞춰 2년 전부터 준비한 투어 차량으로 312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SUV 견인차가 관람객이 탑승한 2대의 트램을 끌고 가는 방식이다.

관람객이 탑승한 트램은 사방 관람창이 발끝부터 천장까지 투명한 통창으로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한다. 관람창은 일반 강화유리의 150배 강도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20mm 5겹 특수 방탄유리여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

앉았을 때 성인 기준 눈높이가 지상에서 약 1.6m 정도로 기존 버스(2.2m)보다 낮아 사자, 호랑이, 불곰 등의 맹수들과 눈을 맞추며 생생한 관찰이 가능하다.

트램 차량 1대당 28석으로 1회 운행 시 최대 56명이 관람할 수 있다. 호랑이, 밀리터리, 게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래핑된 트램 6대를 로테이션으로 운행한다.

새로운 사파리 트램을 타고 약 20분간 진행되는 투어는 3만4000㎡ 규모의 사파리월드 내에 있는 7종 50여 마리의 동물들을 근접 관람할 수 있다. 사파리월드는 호랑이 사파리, 사자 사파리, 곰 사파리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드라이버가 동물들의 생태 설명과 숨은 이야기를 고객에게 들려준다.

에버랜드는 사파리 트램 오픈을 기념해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14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강릉 0/0	대전 0/20	전주 0/20
17 30	16 26	16 31	13 22	16 31	16 30
광주 0/30	대구 0/0	부산 0/0	18 30	16 29	16 23
창원 0/0	제주 20/30	지역	15 25	17 25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78호

발행인: 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